

비즈 프리즘 | 은행들 '베이비 마케팅'에 빠지다

출산·육아 현금성 복지 늘어나... "지금 기회"

아동·양육수당 등 은행 저축으로 유도
캐릭터 통장·태고 금융 상품 등 다양
영유아 통해 미래 우량고객 확보 전략



우리은행의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 KB국민은행의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 KEB하나은행의 '아동수당 적금'(왼쪽부터). 시중은행들이 영유아 및 임산부를 타겟으로 한 '베이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베이비(Baby) 마케팅'에 한창이다.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정부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출산과 자녀 육아를 지원 격려하는 현금성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이를 자연스레 저축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임산부를 포함한 부모들은 충성 고객으로 발전시키고, 통장을 개설하는 영유아 고객을 통해 미래 우량고객을 미리 확보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최근 은행의 베이비 마케팅은 어린이 취향에 맞춘 캐릭터 통장부터 임산부를 위한 태고 금융 상품, 아동수당 채테크 적금 등 다양해졌다. 우리은행은 24일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을 선보였다. 영유아 상품인 우리아이행복 통장,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맞춰 3가지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들

이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금융비용 1만 원을 지급한다. 핑크퐁과 아기상어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근한 은행 이미지를 전달하고 저축 등 경제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와 태아를 겨냥한 금융상품도 눈에 띈다. KB국민은행은 20일 임산부를 위한 태고 금융상품 '내 아이를 위한 280일 적금'을 내놓았다. 아이와 교감하는 10개월을 함께 하는 임산부 특화상품으로 최고 2.60% 금리를 적용한다. 가입기간은 6개

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출산예정일에 맞춰 만기일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고객에게 임신기간에 따른 엄마와 태아의 상태 및 체크포인트를 담은 가이드를 제공한다. 아가방엔컴퍼니 20% 할인쿠폰, 하나투어의 태고여행 상품 할인 서비스도 주어진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임산부 대상 상품의 잠재력이 크다는 게 KB국민은행 측 설명이다. 아동수당을 겨냥한 적금도 인기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모아 자녀에게 돌려주려는 부모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개발

한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3일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를 위한 전용상품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을 출시했다. 월 납입액은 10만 원 이하로 3년 만기에 연 최고 4.3%, 1년 만기에 연 최고 4% 금리를 준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만기 기간의 절반 이상 아동수당 입금, 아이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등이다. 이밖에 IBK기업은행의 'W아이좋아통장'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고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우대 금리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눈으로 보는 경제 25일

코스피지수	2121.64	↓	-4.69
코스닥지수	710.02	↓	-7.67
日 닛케이 지수	2만1193.81	↓	-92.18
中 상하이 종합	2982.07	↓	-26.07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478	↑	+0.038
환율 (원·달러)	1156.2	↓	-0.3
국내금값 (원/그램)	5만3115.44	↑	+791.67



파라다이스 부산 '비키니 페스티벌' 개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여름 풀사이드 파티 '코스모 비키니 페스티벌 2019'(사진)가 7월5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트렌디한 음악, 패션·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 만나 볼 수 있는 이벤트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코스모 비키니 페스티벌 2019'는 호텔 야외 오션스파 풀과 오션 가든 등 두 곳에서 열린다. 합합원에서 인기가 뜨거운 키드밀리와 우원재가 축하공연 뮤지션으로 나서고, 호텔 야외가든 및 수영장에서 애프터 EDM 디제이 풀파티가 열린다.

김재범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출금·이체하세요

오픈뱅킹 12월부터 전면 실시
수수료 인하...고객 편의성 ↑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2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

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특정 은행 앱 하나만 있으면 다른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 및 이체도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18개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정했다. 기존 일반은행 16개 사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 사를 추가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

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존 500원인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400원인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현행 오전 12시30분~오후 11시 30분(1시간 중단) 보다 늘리기로 했다.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단축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의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8월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은행권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금 및 이체를 넘어 각종 금융 상품 조회 및 이용 등으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1조 원 이지스함 지키는 호위무사 'FDS' 도입 필요

(Floating Decoy System)

이지스함은 이지스 전투체계(ACS·Aegis Combat System)를 탑재한 함정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방패로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어떤 방어도 완벽하게 공격한다는 '신의 방패'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첨단 대공, 대함, 대수중 방어체계에 공격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함이다. 건조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다. 미국 해군은 이러한 이지스함을 80여 척이나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적의 이지스함에게도 천적은 존재한다. 바로 대함유도탄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차기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건조,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격 능력이 없다. 이에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에 최고 요격고도 500km의 SM-3급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왼쪽)과 해상에 전개된 FDS3 디코이.

사진제공 | 해군본부·irvingq

현재 미국 해군은 대함유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하드킬(Hard Kill·유도무기에 대해 대응탄을 발사해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방호 수단)인 대공유도무기, 함포, 근접 방어 시스템(CIWS)과 소프트킬(Soft Kill·교란 등의 방법으로 상대 공격체계에 마비나 장애를 일으키게 만드는 방호 수단)인 전자전 장비, 대함유도탄 기만체계(Decoy System)로 다중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중동, 아프리카 연안에서 적대 세력이 발사한 대함유도탄에 이지스함이 피격되거나 피격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에 대함유도탄 기만

체계로 운용해 온 MK36 Super RBOC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채프(Chaff)탄 성능이 RF(Radio Frequency) 탐색기를 장착한 대함유도탄을 막아내는 데에 미흡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미국은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FDS(Floating Decoy System)를 중동, 아프리카, 남중국해에 전개하는 이지스함에 우선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FDS는 부유식 대함유도탄 기만체계로 미국에 이어 캐나다, 뉴질랜드가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UAE, 칠레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FDS는 현대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만

채프탄 등 기존 교란수단 실효성 ↓
해상 부유식 FDS, 전방위 방어 가능

체계로 360도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레이더에 실제 함정보다 크게 나타나 대함유도탄으로 하여금 FDS를 함정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이지스함을 수호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존재다. 한국 해군도 FDS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긴급 소요를 함참에 제기했지만 채프탄, 플레어탄과 같은 기존 교란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요 반영이 유보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해군 병기병과장을 지낸 남무열 예비역 대령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채프탄 대신 코너 반사경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중 낙하산식보다 해상 부유식을 확보해야 한다. 함형별로 작전운용 개념을 고려한 최적의 기만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건조한 전투함이 기만장비 부족으로 유도탄에 피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우리카드, 펫 카드 디자인 공모전 실시



우리카드가 7월 7일까지 '카드의 정석 펫 카드 디자인 공모전'(사진)을 실시한다. 펫팸족을 위한 반려동물 특화 카드 출시를 앞두고 마련했다. 개와 고양이를 활용해 자유롭게 디자인 한 작품을 SNS에 공유하고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당선자에게 대상(1명) 300만 원,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참가자 중 10명을 추첨해 각각 기프트카드 5만 원 권을 제공한다.

공정위, 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맥도날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 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억4400만 원의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정욱 기자